

데스크시각

박진현



연간 총 관객 2만4천363명, 연주회 61회, 자체수입 1억3천720만 원...

지난 2004년 서울시향(대표이사 이팔성)이 1년 동안 거둔 조라한 성적표다. 국내 국·공립 예술단체 가운데 만행이건만 경영성과는 늘 바닥권을 뺏겼다. 특히 열악한 영업수지는 서울시향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이다 보니 '세금만 축낸다'는 비난을 받기 일쑤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향은 더 이상 예전의 서울시향이 아니다. 2만여 명에 불과했던 관객은 16만여 명(2007년 기준)으로 무려 8배 정도 늘었다. 가뜩이나 콩 나듯 한 연주회도 121회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자체수입은 33억 원으로 2천 400%나 초고속 성장했다.

서울시향 성공 일군 이팔성 대표

서울시향이 국내 대표 오페스트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어떤 이팔성 대표의 리더십이다. 지난 2005

년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서울시향은 마에스트로 정명훈씨를 상임지휘자로 영입한 데 이어 초대 수장에 우리증권 CEO 출신 이씨를 앉혔다. 각계를 아우른 후보 추천과 투명한 인사절차를 거쳤음은 물론이다.

침몰 직전의 '서울시향호'를 떠맡은 그는

문화CEO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

는 관객을 늘리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경영의 정석(定石)'을 내침반으로 삼았다. 비(非) 예술인 출신인 그가 내놓은 시리즈 티켓, 회원제 도입은 대박을 냈다.

그는 또 실력 위주의 오디션을 거쳐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을 영입했고 제 살 깎아 먹는 '초대권 발행'을 과감히 없앴다.

이제는 무엇보다 '자리만 지키는' CEO를 거부했다. 기업협찬에도 직접 나서 굵직한 기업들을 '시향팬'으로 잇따라 끌어 들였다. 3년 만에 흑자경영을 이룬 그의 성공신화는 국내 문화재단과 공기업의 벤

치마길 사례가 되고 있다.

김해 예술의 전당(이하 김해 전당) 사장 김승업씨도 문화CEO로는 둘째가라면 서럽다.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출신인 그는 지난 2005년 취임 일성으로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문화공간'을 내세웠다. 공연기획 전문가인 김씨의 해박한 식견과 과감한 추진력에 힘입어 김해 전당은 개관 3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문화보물고에서 문화 허브로 신분 상승했다.

이처럼 문화CEO의 역할은 예술기관의 미래를 180도 바꿀 만큼 막강하다.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고양 문화재단, 서울 예

술의 전당, 전주 한국소리문화 전당, 대전 시립미술관 등 요즘 '잘 나가는' 문화기관 의 배우자는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CEO가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이 지역에서는 문화CEO를 찾아보기 힘들다. 언제부턴가 광주문화예술진흥 위원회,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문예회관 등의 수장은 일부 지역 예술인이나 정년 을 앞둔 공무원들의 차이가 돼 버렸다.

물론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은 없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의 '자리'가 공모

등 객관적인 절차보다는 몇몇 지역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밀실인사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이렇다 보니 문화수도의 인프라 다른 차별화된 운영과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엔날레 CEO '밀실 선임' 되나

최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CEO도 마찬가지다. 재단은 지난해 신정아 사건으로 실추된 비엔날레를 추스리기 위한 개혁카드로 민간인 출신의 문화CEO 선임을 내걸었지만 진행과정을 보면 밀실인사의 재탕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후보군 리스트를 통해 적임자를 영입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몇몇 재단 인사들에 의한 추천으로 후보들을 골라내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CEO와는 거리가 먼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는 등 수개월째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의 문화CEO영입은 단순히 재단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투명한 인사과정을 거친 문화CEO 출현은 비엔날레의 미래뿐 아니라 지역 문화계의 패색적인 인사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엔날레 문화CEO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여야 하는 이유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시설

여수산단 정전사고 근본대책 서둘러야

여수국가산단에서 6일 대규모 정전 사고가 또 발생해 충격이다. 여수산단 여천 NCC 3공장 안에 있던 변압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이 공장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대림산업도 가동을 멈추었다. 업체의 피해를 감안하면 '엎친데 덮친 꼴'이 아닐 수 없다.

여수산단의 정유·화학공장은 전기가 1초만 끊겨도 파이프라인에 남아 있는 중간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크다. 정전사고는 사고 후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최소 24시간이 소요되고 정상 가동까지는 2~3일이 걸리는 등 재앙이나 다름없다. 지난 3일 발생한 정전사고의 피해액도 100억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여수산단은 보안등급이 가급적 국가의 주요 시설이다. 이런 시설에서 잇달아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06년 5월에도 정전사고가

나 5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120 억원을 넘는 피해를 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안전성 전력 공급 대책이다. 여수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발전소와 변전소는 모두 5 곳이지만 공급시스템에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입주업체로 연결되는 선로 중 한 곳에서 이상이 발생해도 대규모 정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수산단 전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여수산단에서 정전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사고가 빈발하면 입주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전력 공급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송전선 복선화 등 다각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한전과 입주업체, 산업단지공단 등은 정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바란다.

광우병 '안전성 논란' 정부 대응 문제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오는 9일과 10일 각각 여수, 광주에서도 열릴 예정으로 있는 등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자칫 심각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동안 정부의 서론 대처가 이 같은 상황을 불러온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광우병 논란에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광우병 괴담으로 불안감이 증폭됐다면 서둘러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안전성 논란을 특정세력의 선동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촛불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법처리 운운하는 경찰의 태도 역시 국민의 불신과 격정을 해아리지 못한 발상이다. 이는 사태의 본

질을 왜곡시키고 국민 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국내 검역기준을 번번이 위반함에 따라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제한 조치를 해 온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국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 놓고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검역을 현지에 상주시키는 등의 후속 대책을 진작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이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떨치기에 는 턱도 없다. 정부·여당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협상을 검토키로 했지만 수 없이 외양간 고친 꼴이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협상의 모든 과정을 낱알이 공개 해 국민의 불신부터 씻어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강대석



새 정부 들어 중앙부처는 물론 시군까지도 예산 10% 절감을 위해서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다. 전남도 역시 본청과 시군이 올해와 내년까지 2년에 걸쳐 금년도 순계예산 8조 6천억 원의 10.1%인 8천724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즉 올해에는 이미 예산이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2천982억 원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5천472억 원을 절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예산 절감효과가 가장 큰 계약 분야를 중점 개선기로 하고 계약상사부서를 설치해 설계, 원가 계산, 계약방법 등의 철저한 심사와 계

예산절감시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과 업무개선 등을 통해서 구조적인 낭비 사유를 제거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 절감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살림이라는 생각으로 절감하는 마인드를 가질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고

예산 10% 절감, 모두 참여해야

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자가 낙찰제도 역시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100억 원까지 확대해 경쟁을 통해서 절감을 유도하고, 낙찰차액은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통제해 전액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최자가 낙찰제 확대가 영세한 지역 업체의 공사 도급을 막는다거나 부실공사를 낱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의 체납액 징수를 제고, 은근 공유재산 발굴, 수수료의 현실화는 물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한 업무개선으로 수입을 최대한 확충해 절감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꼭 지켜야할 덕목 중의 하나가 절용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적인 씩씩이를 절약하는 사람은 많지만 관재를 아끼는 백성은 드물다. 관재를 내 것처럼 아긴다면 현명한 수령이다"라고 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선자치 이후 일회성 행사와 선심성 사업 등 사업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모든 경성비를 줄이고, 일회성 축제 행사나 소모성 사업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제화 하는데 지혜를 모아 갈 때이다.

예산을 절감하는 일은 공무원들의 과제이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고 감시하는 일은 국민들의 몫이다.

<전남도 예산총괄담당 사무관·시민·2005년 6월 수성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면접은 '맞선'이자 '궁합'... 상호 존중·진중함 갖자

입사 지원자에 대해 면접을 하는 것은 회사 지원자를 평가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회사와 지원자 간에 소위 '맞선'을 보는 것과 같다. 남녀 사이로 말하면 '궁합'이 될 수도 있겠다.

중견기업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직자들의 면접 때문에 자주 고민한다. 그 이유는 면접 때에 구직자들이 면접장에서 장시간을 활해해 '똥'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소위 명문대 나오고, 해외까지 다녀와서 어학 등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제출자들은 "이 회사 아니래도 갈 데 많다"는 자제다. 그러다보니 "이 회사에서 내게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태도다. 명문대 나오고 어학능력이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수 인재라고는 할 수 없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은 나중 일이고 무조건 자신의 몸값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자들은 입사한 뒤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린다. 사람 하나를 뽑기 위해 공들인 회사도 난감하지만, 그로 인해 올바르게 일할 생각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차점자만 억울하게 만드는 꼴이다. 젊은 이들의 '진중함'과 '상호 존중'을 기대한다.

<김용목·광주시 서구 덕흥동

기고

이동범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스승의 날이 찾아온다. 스승의 날을 국가에서 정한 것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입지를 굳게 세우자는 것이었을 텐데 요즘은 사회나 학부모들은 이를 곡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승의 날' 때문에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흔히 말하기를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라든가 '군사부일체'라고 존경의 뜻을 표현하여 왔기에 스승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온 모든 선생님들께 더욱 경의를 표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은 현상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여건을 마련해주는 등 진정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을 때 선생님들은 힘을 얻어 신바람나는 교육을 하게 되고,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줄 믿는다.

"교육은 백년 후의 보람"이다. 누가 뭐래도 국가의 운명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열악한 교육 여건이라 하더라도, 혹은 사회가 교육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은

스승 존경 풍토 조성공 공교육 정상화

그러나 최근 들어 스승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는 교단의 위상이 추락되어 교권이 실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육 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선생님들이 설 땅을 잃고 있으며, 학교 교육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일부 사회인들의 인식,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내 자녀만 잘 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 등에서 선생님들을 불신하는가 하면, 바른 교육을 위해서 계도하고 선도하는데도 이를 순순하게 받아주지않는 커넥트단체 등에 신고하는 사례 등은 선생님들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신과 잘못된 인식 때문에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학부모·학생들의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갖추어 떳떳이 교단에 서는 스승의 길을 가야 한다.

교육자 스스로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고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으로 사회의 사표로서 품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스승의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럴 때 교권이 확립되고 스승의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부모나 사회는 스승의 정신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전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고 스승의 위상을 찾아주어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와 국가를 위해서 말이다.

<광주여자대학교 객원교수>

1주일새 한우값 100만원 폭락... 정부 대책 세워라

얼마 전 5일장 우시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농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겠다고 한 뒤 열리는 장이라 어느 정도 경매가 될 지, 값은 얼마나 할 지, 모두 긴장하고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거래는 평소의 절반밖에 안됐고 소값도 뚝 떨어졌다.

예전 장날에 230만원 정도 하던 6개월 된 암소가 지금은 150만원 정도밖에 안됐다. 한 농민은 지난 주에 이 곳에서 새끼 뺐 소를 360만원에 샀는데 일주일새 230만원으로 떨어져 거래될지 미칠 노릇 아니냐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러다가는 다 끊어죽을 판이다며 농민들은 두서없이 '서울로 올라가

싸우자', '국회에 가서 따지자'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료는 1포 값이 2~3개월사이 2천원가량 오르고 앞으로 5, 6월 또 오른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소값은 폭락하니 어찌 살라는 말인가. 이게 제대로 된 농업정책인가.

이미 미국과 타결된 정책이니 시행되는 건 막을 길이 없어보인다. 그렇다면 후속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닌가. 하루빨리 한우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대통령탄핵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왜 그러는지 제대로 살펴보기를 바란다.

<▲이정민·장훈근 유치면

無 等 鼓

한 방송매체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 '한국인 유전자는 광우병에 약하다' 등의 보도를 한 이후 온나라가 '광우병 괴담'에 휩싸이고 있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정처없는 광우병 괴담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확산되며 그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모두가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있지 않나 싶다.

'치매환자 중 상당수가 드러나지 않은 광우병 환자다' 등 괴담은 수도 없이 많다. 괴담이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선언하기도 곤란하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확실한 근거 없이 안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시민 분노 촉발의 요인일 뿐이다. "미국 사람들이 다 먹고, 나도 미국 가면 먹는다", "광우병은 과장된 것",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 등 하나같이 국민적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광우병 '괴담'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광우병은 '변 프리온 단백질'이 소에게 일으키는 전염성 질환이다. 특히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영국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고 수 십명이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감염돼 숨지는 사고가 터질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다.

국민건강권이 이런 상황에 위협을에도 정부는 이런 우려를 묵살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귀에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이럴 수밖에 없으니 광우병 쇠고기 위험 정도야 덮어두고 가자'는 말로 들리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 건강과 건강을 지켜줘야 할 정부로서 무책임의 도가 지나치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www.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처 부 2200-616 사 회 1 부 2200-617 <F A X 222-4267>	시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 화 생 활 부 2200-626 여 련 채 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경 영 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미 케 링 국 2200-521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 화 회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